

3월 지육시세는 2,900원/ kg 예상



권혁만 양돈 BU장
(주)선진 양돈 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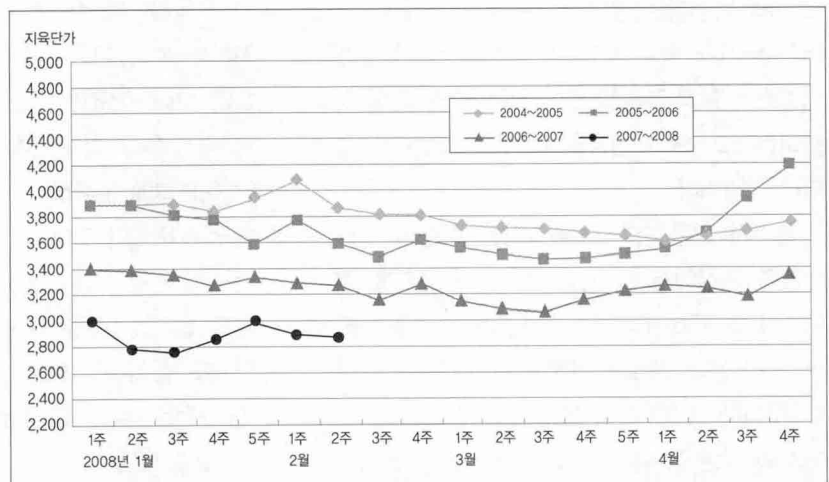
사료 가격의 폭등과 돈가 폭락이라는 최악의 현실이 점점 양돈 농가를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비육돈 110kg 돼지 1두 출하에 들어가는 사료비는 사료요구율 3.1로 계산하면 kg 당 급여단가를 460원으로 계산시 약 157,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는 비육돈 110kg 돼지 1두 판매당 3~4만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2007년도 돼지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247,403톤을 기록하고 쇠고기 수입량은 202,785톤을 기록하여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합하면 450,188톤을 기록하여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하였다. 이렇게 급격하게 육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육류시장의 가격 폭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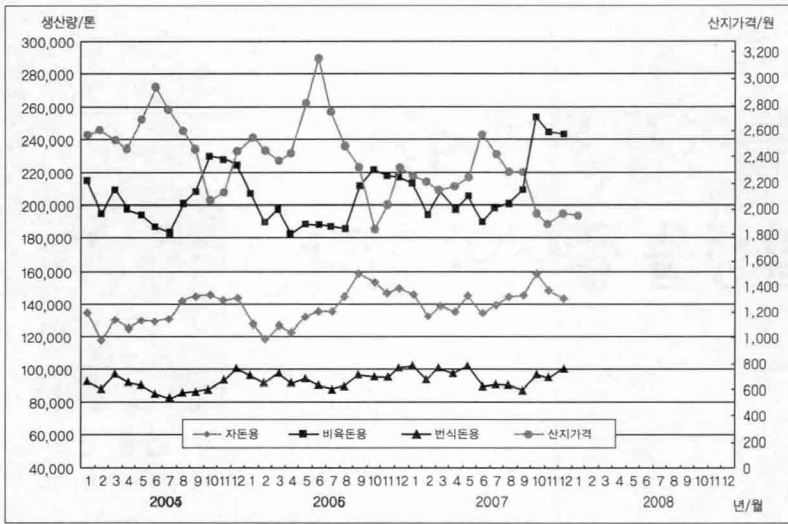
이러한 수입 육류의 증가 추세가 지속 되면 국내 육류 시장의 가격은 계속 폭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 하겠다. 게다가 금년 1월에는 설 명절로 인한 소고기 도축두수 증가로 최근 2001년 9월 10만 4천두 이후 가장 많은 도축두수인 94,021두를 기록하여 쇠고기 공급 과잉이 가격하락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8년 1월 돼지 도축두수는 1,317,929두를 기록하여 2004년 11월 1,347,929두를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두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1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소의 도축두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올해는 94,021두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62,784두에 비하여 약 50%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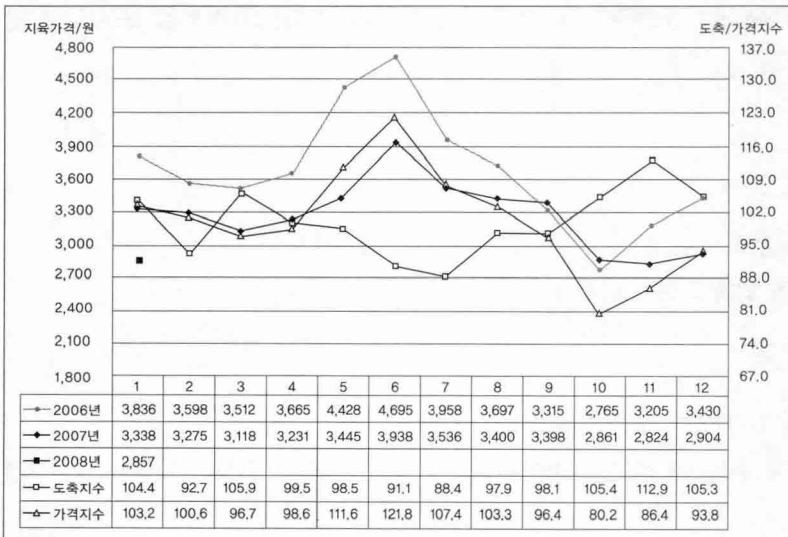
이러한 공급량의 초과로 국내 육류 시장의 초과공급 상태가 작년 10월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결국 돼지 가격의 폭락을 가져오고 있다. 공급 시장에서는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 동향

는데 금년의 세계적인 금융불안으로 인한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주가 하락과 경기 위축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소비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기대 되기 때문에 국내산 돈육의공급 감소에 따른 비육돈 지육단가의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초 개학하면 학교 급식 시장이 활성화되어 돼지 가격을 다소나마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2008년 3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2,900원을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소와 돼지고기 모두 수입산과 국내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금년1월의 소와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135,347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이러한 초과 공급 시장을 이겨내고 돼지 가격이 급등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하겠다.

물론 2월과 3월은 혹 한기를 커오느라 자돈의 성장 발육이 지연되어 출하일령이 느려지고 돼지 공급이 줄어들게 되지만 이러한 수치보다는 총 공급량이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출하를 예측하는 자돈 사료 생산량은 10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3월 중순 이후 출하 물량의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가 기대되지만 현재까지 과잉 공급된 육류의 시장이 돈육 및 우육의 재고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재고의 소진 은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 하